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6월 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확대! 재벌체제 개혁!

코로나 위기 떠넘기지 마라!

전 세계적인 위기를 틈타 자본은 계속해서 특혜를 요구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짤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는 무관하게 자본의 숙원사업들을 이번 기회에 관철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위기가 본격화되지 자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자본에게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한 경제 살리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저 자본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만이 필요하다.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확대! 재벌체제 개혁!

우리 현장에도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사업장도 발생하고 있다.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는 사업장도 있다. 지금의 위기는 일부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전 사회적으로 함께 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사회적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서 모든 노동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산별협약을 요구한다.

6/10(수) 14시 국회 앞으로!

금속노조는 국회 앞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엄중히 선포할 것이다. 6월 10일(수) 전국 확대간부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의 공격을 저지하고, 오히려 재벌체제 개혁만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LG케어솔루션에도 금속노조!

LG전자의 가전제품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제품 렌탈과 유지관리 사업인 케어솔루션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를 설립했다. 전국에 약 4,000명 정도가 있다. LG전자는 정규직 한 명 없이 4,000명 전원을 특수고용 노동자로 사용했다.

작년 LG전자 직수형 정수기 설계결함으로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자 LG전자가 케어솔루션 노동자들에게 직접 정수기를 분해하고 내부 단열제를 교체해야 하는 업무를 강요하고 떠넘기자 분노한 노동자들이 뭉쳤다.

대전과 충북지역에서도 LG케어솔루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부 차원에서 함께 연대할 것이다.

*** 주요 일정 ***

■ **5차 중앙교섭**
- 6/2(화) 14:00, 경남지부

■ **금속노조 충청권 법률학교**
- 6/2(화) 09:00, 충남 당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교섭위원 공동투쟁**
- 충북 : 6/4(목) 11:30, 원남 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대전 : 6/4(목) 12:00, 한신S메카 미조직 선전전

■ **4차 지부교섭**
- 6/4(목) 15:00, 보쉬